

일본 도시디자인 선진사례

- 고베, 교토, 요코하마, 치바

이충훈 | 충남발전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장



본 내용은 충남공공디자인 시·군담당자 선진지 연수계획에 따라 '10년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4박 5일간 일정으로 고베, 교토, 요코하마, 치바를 방문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1. 고베시

① 고베시 현황

고베시는 항구를 중심으로 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오래 전부터 번영해 왔다. 1868년 개항과 외국인 거류지의 설치를 계기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하여 이국정취가 넘치는 도시 고베의 이미지 원천이 되었다. 고베시는 인구 150만, 면적 552km², 해발 1,000m 높이의 롯코산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근대 무역항으로서 일본최초로 서양문물이 유입되었다

② 경관형성

고베시는 푸른 숲이 우거진 롯코산(六甲山)을 배경으로 고베 하버(항구)랜드와 포트 아일랜드 등 시민들이 바다와 배, 항구를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이 조성되고, 항구도시 고베경관이 형성되었다. 고베시의 워터프론트 경관 형성은 20 30년전에 시작되었으며, 1988년 자연 경관이 빼어나고 해수욕장이 분포된 스마 마이코 해안(179ha)을 도시경관형성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 해안을 다시 8개 구역으로 나눠 해당 구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개발 행위와 보전 방향을 확정하였다. 풍부한 녹지가 분포된 해안구역은 거리 조성을 유도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해 구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건축물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 건폐율, 외벽 후퇴 거리, 색채, 지붕 형태, 베란다, 건축물 형태, 차양, 색채 등에 대한 규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옥외광고물을 비롯해 돌출·지상광고물, 전신주와 가로등을 이용한 광고물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메모리얼 파크에는 지진 등 재난의 교훈을 일깨워주기 위해 1995년 고베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교량 등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하버랜드에서 메모리얼 파크로 이어지는 거리는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닌 시민·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모이게 하는 집객 역할을 수행한다.

고베시는 자연과 바다, 산 등 지형적인 조건을 최대한 고려해 도시 경관을 수립하고, 특히 고베다운 도시경관의 형성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였다.

③ HAT 고베 동부신도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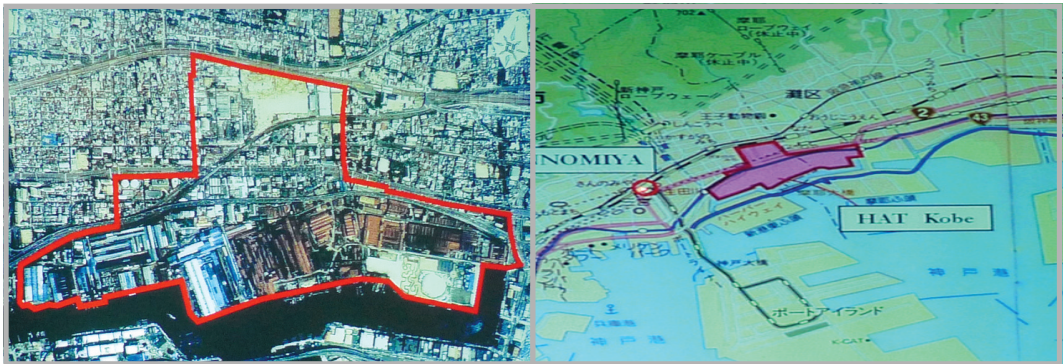
산노미야의 동부신도심 계획지구는 거주인구 30,000명, 면적은 120ha이며, 'Happy Active Town' (HAT)이라는 명칭을 1,800명의 응모작에서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HAT 고베는 간척지구 공사 후 공장지대로 이용하면서 제철, 제강산업이 주 업종을 이루고 있었



고베시 하버랜드(좌), 메모리얼 파크(우)

다. 2차 대전후 고베시의 산업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며 1980년 이후 공장들을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장이전 후 공터로 남은 도심의 빈터엔 인적, 물적 이동으로 고령자만 남게되었다.



HAT 고베도시개발 지역

HAT 고베는 새로운 도시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995년 고베 대지진으로 인하여 이재민을 위한 시내 주거단지를 신축하고, 시가지 개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원래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었다.

HAT 고베의 기본목표는 고밀도 환경에서 휴먼 스케일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이며, 사업 기간은 1995년~2003년 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541억엔이 소요되었다.

HAT 고베의 마을재생사업 4개 요점으로는 첫째, 안전-튼튼한 집, 둘째, 환경 - 친환경적 개발, 셋째, 복지-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넷째, 활력-도시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등이다.

주거단지내 노인복지시설은 턱을 낮춰 휠체어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설계하도록 하였으며, 지진에 대비하여 주도로 옆에 비상도로를 설치하여 구조차량이 통행하도록 폭을 넓혔다. 공원 및 녹지와 연결된 산책길은 바닷가를 따라 조성하고 주거지역내 어린이 공원을 조성,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조형물을 만들어 설치하였다.



고베시까지 전경(좌)과 보행자 중심 도로(우)

④ 고베시 경관조망 배치 가이드라인

건물높이를 배경산의 능선의 높이에 따라 조절하고, 경관형성에서 건물이 배경이 되도록하고 걷는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물을 뒤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조망성을 높였다.

HAT 고베시에 건축물 신축시 고베경관조례에 따라 조성하고, 육각산과 바다의 전망을 해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HAT 지역내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여 활력 넘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색채는 고채도, 고명도를 배제하고 중·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고베시 경관 스카이라인 및 시내가로경관

⑤ 시사점

‘이야기가 있는 워터프론트’를 만들고 단순히 바다를 보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만이 아니라 ‘즐거고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시민·관광객들에게 워터프론트의 매력을 주고 있음

고베시는 자연과 바다, 산 등 지형적인 조건을 최대한 고려해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고베다운 도시경관의 형성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조례 등 제도 검토 추진

아카시해협대교, 유람선 등 시가 정한 조망점에서 산과 바다 등 자연에 대한 조망 확보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해안 경관을 유지



고베시 도시계획 브리핑

2. 교토

① 교토시 현황

교토는 일본 혼슈[本州] 중서부에 있는 교토부 부청소재지(府廳所在地)로서 긴키[近畿]지방의 중심 도시이다. 794~1868년까지 1,000년 이상 황궁(皇宮)이 있던 일본의 수도였으며, 불교문화와 직물업·요업 등의 전통산업을 선도하여 왔다. 현재에는 국제적인 문화·관광 도시로서 면적은 610.6km², 인구는 1,387,264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는 폭격을 받지 않아 전통적인 유적·유물이 피해를 입지 않아 교토에는 일본의 역사와 전통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을 비롯하여 노우[能: 일본의 전통연극]·한문학·서화·다도·꽃꽂이·통속소설 등이 성행하여 독특한 일본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② 교토시 경관정책

고도보존법에 의해 역사적 건조물과 자연환경이 일체를 이루는 고도의 역사적 풍토를 보존하는 풍토특별보전지구를 1930년에 지정하였다.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는 시가지경관조례에 의거 특별수경보전지구를 참고하여, 1975년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 제도화하였다.

경관 중요 건조물의 지정 (단체정비-역사적 경관재생사업)

역사적인 건조물이나 교토다운 정취가 있는 경관을 보전재생하기 위해 경관중요건조물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경관상 중요건축물의 외관수리시 지원해주고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

2010년 까지 시행해 나갈 주요정책으로서 평안함이 있는 생활과 화려함이 있는 '21세기 교토의 거리만들기' 방침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광역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범죄나 사고가 없는 안전한 거리만들기

둘째, 걷는 매력이 있는 거리 만들기

셋째, 물과 녹음을 살린 거리 만들기

넷째, 보전, 재생, 창조를 기조로 한 거리 만들기 등이다.

④ 역사지구 재생계획

역사지구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통해 도시를 창조

대표적인 접근방법으로 “Walking around town” 활용. 이 슬로건은 문유 회랑(文遊回廊)을 만들어 도시민이 문화로서 향유할 수 있는 도시 교토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유회랑(文遊回廊)이란 “교토에 흠어져 있는 역사적 장소와 유물 등을 이야기와 보행로로 연결하는 “문화 복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확대되어 교토시를 둘러싼 산과 호수를 연계한 친환경 관광으로 연결되고 있다.

⑤ 시사점

범죄나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만들기, 거리의 배리어프리화, 자연과 역사환경을 살린 특색있는 공원의 정비, 조화로운 거리의 재생 등을 추진

역사적 장소와 유물 등을 이야기와 보행로로 연결하는 문유회랑(文遊回廊)을 만들어 도시 내외부에 중요한 문화적 자산과 건축물, 사원 및 역사를 삶의 일부로 느끼도록 공간을 연출

3. 요코하마

① 요코하마 현황

요코하마는 일본 가나가와 현(神奈川縣)의 현청소재지이며 일본 제2의 도시이다. 1859년 미일수호통상조약에 따라 개항한 이후 1872년 요코하마와 도쿄 간 철도가 부설됨으로써 일본 최대의 항구가 되었다. 요코하마는 일찍부터 서양식 문물을 받아들인 국제적인 도시로서 2차대전 이후 황폐화되어 있던 도시를 바꾸기 위해 1971년부터 도시차원에서 공공 공간디자인을 전개하였다.

1980년대 기업체들의 도쿄로 회귀현상과 도심부에서 취업자수가 2만명 감소로 나타남에 따라 도쿄로의 도시기능 집중, 생활양식과 사회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요코하마시는 직장과 주거공간이 일치하는 자립도시의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업무와 상업부문이 주체가 되어 기능강화를 꾀하고 동시에 문화예술, 관광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도심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21’이다.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MM21)은 바다와 인접한 미래도시지역으로 요코하마시 서구(西區)와 중구(中區)에 걸쳐 면적은 총 1.86km²이다

MM21지역에는 요코하마의 상징 랜드마크타워와 퀸즈스퀘어요코하마, 코스모월드 등 고층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요코하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카나가와현(神奈川県)의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인 주식회사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에 의해 철저한 계획으로 정비된 이 거리는 ‘21세기 미래형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는 취업인구 약 5만 6천명(2005년), 도시 방문객수 약 4천 7백만명(2005년), 건설투자 약 2조 2,240억엔, 사업활동효과 약 1조 1,233억엔으로 나타났다.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지역

② 요코하마시 도시 디자인의 목표

요코하마는 과거와 미래를 조화시키는 도시계획을 통해 문화도시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요코하마는 25년간의 미나토미라이 사업을 통해 포지셔닝에 걸맞는 하드웨어를 갖추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 성공을 발판 삼아 ‘창조도시 요코하마(Creative City Yokohama)’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실시하여 왔다.

과거와 현재가 적절하게 조화된 도심, 도시 어느 곳에서도 해변이 보이도록 계획된 스카이라인,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적용된 도시디자인, 그리고 잘 보존된 역사자원 등 도시의 외관은 상당한 수준이며, 이를 발판 삼아 요코하마는 창조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도시에 창조성을 불어 넣음으로써 도시 곳곳에 예술과 문화를 꽃피우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요코하마를 과거 르네상스 도시였던 이탈리아 피렌체처럼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기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항만 주변에 6개의 ‘창조도시 거점지구’를 만드는 등 예술가들을 불러모으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옛 다이이치간교(第一勸業)은행을 개조해 만든 '뱅크아트 1929'에선 문화·예술 강좌가 연중 열려 전문가와 아마추어들이 교류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아티스트의 작업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예술가들과 어울리고 이들의 작업을 직접 보고 참여할 수 있는 도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요코하마시 측은 예술 작품 생산과 유통, 관광 등 경제 파급 효과가 연간 1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코하마 아티스트 작업공간

③ 요코하마 도시디자인의 목표

인간적인 매력있는 도시만들기 추진

요코하마시는 '요코하마시'라는 지역공간을 좀더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시민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지역에 자부심을 갖도록 도시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도시정비 가운데는 미적, 인간적인 가치, 각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 등을 반영한 이 도시디자인 활동은 다음 일곱 가지로 제시된다.

1. 보행자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한다.
2.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광장, 의사소통의 장소를 늘린다.
3. 거리의 형태적,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창출한다. (지역별 디자인 원칙의 확립)
4. 지역의 자연적 특징을 중요시 한다.

5. 시가지 내에 녹지나 오픈 스페이스를 많이 한다.
6. 바다, 강, 못 등 수변공간을 중요시 한다.
7.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풍부하게 한다.

도시디자인의 목적은 도시를 인간적인 매력있는 곳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그 곳에 살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그곳으로 옮기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데 있다.



요코하마 공공공간 디자인

④ 역사를 살린 도시 만들기

요코하마에는, 개항 이래의 근대 건축이나 서양관, 토목 유산이 남아 있으며, 교외부에는 농촌의 풍치를 전하는 고민가나 사찰이 남아 있다. 이러한 역사적 자산을 재평가해, 마을 조성의 자원으로

서 그 보전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가기 위해 「역사를 살린 마을 만들기 요강」을 시행하였다.

소유자의 협력을 얻고, 주로 건축물의 외관을 보전하면서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요강에 근거해 등록, 인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인정을 받은 역사적 건조물에 대해서는, 외관의 보전 개수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조성을 할 수 있으며, 내진 개수(구조 보강)에 대한 비용 조성 제도도 설치하였다.또, 소유자와 관계기관과의 조정 에 의해 가능한 경우에는, 요코하마시가 역사적 건조물을 취득해, 시민 이용 시설로서 정비하여 공개를 도모하고 있다.

⑤ 요코하마시 경관비전

요코하마시 매력있는 도시 경관의 창조에 관한 조례매력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구(도시 경관 협의 지구)의 경관 룰 만들기를 시민과 협동으로 진행해 지구내에서 건축 등을 조성할 때, 보다 질 높은 경관 형성을 목표로 사업자와 요코하마시가 협의를 실시한다.



요코하마 토목유산 활용 사례(도쿄야드가든, 아카렌카, 철도)

요코하마시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근거해, 구역을 지정해 경관 형성의 기본적인 룰을 정한 것으로 현재, 칸나이 지구, 미나토미라이21 추우오치쿠를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⑥ 시사점

- 다양한 디자인 수법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질을 높인 요코하마다운 개성 창출
- 도로나 항만, 다리 등 다양한 건축물들과 가로등 사인, 벤치 등 작은 시설물까지 디자인을 개

선하고, 야경연출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

■ 역사적 자산보존 등 새로운 연출을 더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



요코하마 토목유산 활용 사례(도크야드가든, 아카렌카, 철도)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지구 야경



오산바시 국제여객터미널

4. 치바시 현황

치바시는 도쿄와 25km떨어진 도시로서 나리타 공항과 도쿄 중간에 위치해 교통의 접근성이 편리하다. 치바시는 1967년대 매립지에 도심지 개발, 도쿄의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 마쿠하리 베이타운 윤곽

21세기형 국제업무도시, 마쿠하리 신도심. 도심 전체가 ‘타운센터지구’, ‘업무연구지구’, ‘문화교육지구’, ‘공원녹지지구’, ‘주택지구’ 등 다섯 개의 지구로 구성되어, 직(職)·주(住)·학(學)·유(遊)를 충족시킨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은 신도심의 다양한 도시기능을 배경으로 한 ‘주택지구’에 있는 주택지로서 도시에 사는 즐거움과 기쁨, 사람과 도시의 관계를 다시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마쿠하리 베이타운의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치바현 기업청’과 ‘도시재생기구’, ‘치바현 주택공급회사’, 6개의 ‘민간사업자 그룹’이 긴밀한 파트너십 하에 실시되고 있다. 계획 총 호수 9,000호, 계획인구 약26,000명의 거대한 규모와 ‘도시에 산다’는 관점에서 발상을 했기 때문에 전체 계획도, 주택 형태도 거리의 모습도 종전의 교외형 뉴타운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은 옛 일본의 주택과 유럽의 도시처럼 체험과 문화, 정보 등의 다양한 지적 자극이 기다리고 있는 주택지로, 주거와 거리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연도(沿道)형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다.



마쿠하리 베이타운 전경

거리 형성은 도시 디자인의 구체적 원칙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1999년에는 도시형 주택지로서의 기능성과 거리의 경관을 중시한 거리 조성 시스템이 인정을 받아 주택지로는 처음으로 굿 디자인상, 어반 디자인상을 수상하였다.



마쿠하리 베이타운

■ 마쿠하리 베이타운 기본컨셉

- Work (직업) - 국제 비즈니스 기능
- Living (주거) - 연구 개발기능
- Learning (학문) - 과학, 교육기능
- Enjoying (유희) - 편안하고 매력적인 거주환경

■ 도시능력(Urban Faculties)

- 주민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마찌즈꾸리 추구
- 환경디자인 매뉴얼을 기초로 한 Sky Way Deck(in a private site), Green Belt(in a private site)
- Setback(벽면후퇴), 공공공간과 건물공간의 일체화, 전신주 지중화, 지구내 녹지공간 조성토지의 일부분을 기업에서 제공

■ 마쿠하리 베이타운 건축디자인

마쿠하리 베이타운 건축 디자인의 특징은 배치와 연결에 의한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에서는 파리의 아파트망이나 런던의 테라스하우스로 불리는 도시 거주군과 같이 연도형 주택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최소단위가 되고 있다.

거리 중심부에 늘어 선 중층주택에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건물의 높이를 균일하게 하며 격자 형상의 길을 따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룬 정돈된 풍경을 만들면서 거리 전체에 정돈된 연속성이 생겨나 거리 풍경이 형성되고 있다.

거리를 감싸 안듯이 지어진 고층주택과 초고층 주택은 거리의 밖을 향해 있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에서는 거리 전체의 조화를 이루면서 각각의 지구에 개성 있고 산뜻한 색감의 디자인을 채택하였다. 거리의 최소단위인 가구(街區), 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리모습 등은 마쿠하리 베이타운의 아름다운 경관이 탄생하게된 배경이 되었다.



마쿠하리 베이타운 건물 외관디자인

■ 마쿠하리 베이타운 가로디자인

마쿠하리 베이타운에서는 거리 공간에 다양한 연출을 함으로써 거리의 풍경에 변화와 특징을 부

여하고 있다. 거리에 온기와 상쾌함을 주는 가로수와 어린이공원 등의 그린 스페이스, 열 두 개의 별자리를 나타낸 기념물과 블록 모퉁이의 인상적인 외관, 도시다운 활기와 주택지로서의 조용함 모두를 연출하는 조명시설 등은 거리의 개성과 감동을 주는 마쿠하리 풍경의 특징이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에서는 거리 풍경의 방해가 되는 전봇대가 없는 거리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전력 케이블이나 전화 케이블, CATV케이블 등을 지하의 공동구로 모아 전선과 전봇대가 지상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처리는 각 가정의 가연·불연 쓰레기를 지하 공동구 내의 파이프를 통해 쓰레기 시설로 보내는 ‘폐기물 공기수송 시스템’을 도입했다.

선진 도시시스템을 바탕으로 종래 일본의 주택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거리 풍경이 탄생했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의 가로는 교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거리의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마쿠하리 베이타운 거리를 꾸미는 다양한 연출

■ 마쿠하리 베이타운 포장도로 디자인

마쿠하리 베이타운에서는 연도에 활력을 주고 모든 집이 활기를 띌 수 있는 연도형 주택을 채택하였다. 주택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나가면 바로 눈앞에 활기찬 거리가 펼쳐진다. 가로는 생활공간의 연장선상에 있고 주택의 앞뜰이 된다. 이를 위해 건물과 일체적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사는 사람이 여유를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의 메인 스트리트인 미하마 프롬나드는 거리의 활기를 가장 실감할 수 있는 장소이다. 연도의 주택 1층에는 세련된 상점이 늘어 서 있어 마쿠하리 베이타운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방문객도 편하게 들러 즐길 수 있는 가로 공간이 되고 있다.

또한 미하마 프롬나드에는 화강암이 깔려있는 차도와 보도가 있고 석조의 질감이 활기와 어울리

는 친숙한 가로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이 마쿠하리 베이타운의 가로공간은 오가는 사람이 도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오픈된 가로공간은 주민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중요한 스페이스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의 커뮤니티는 거리의 활기를 만들어 내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의 자발적인 제안으로 ‘베이타운 축제’를 비롯해 수많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거리 전역에 일루미네이션이 장식되어 있다.



마쿠하리 베이타운 가로공간

■ 마쿠하리 베이타운 파티오(중앙 정원)디자인

마쿠하리 베이타운의 가구는 중앙에 휴식 공간이 되는 중앙 정원(파티오)을 둔 유럽 스타일의 주택이다. 안뜰은 주거에 햇빛과 바람을 가져오기 때문에 과거 유럽에서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때, 건물에는 위생과 건강을 위해 가능한 넓은 파티오를 두도록 설계했다.

각 가구마다 특징 있는 중간 정원. 조경이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중앙 정원이나 물 광장이 있는 시원한 정원, 청량감을 주는 신전과 같은 중앙 정원, 녹색과 기념물이 조화를 이룬 세련된 중앙 정원 등 각 가구마다 정취 느낄 수 있다.

도시의 활기, 휴식과 안정을 공유하는 마쿠하리 베이타운의 주거단지에는 두 가지의 다른 생활 공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 마쿠하리 베이타운 교육공간디자인

마쿠하리 베이타운에서는 단일화를 배제하여 건물의 외관, 교실 등 각각이 독창적이고 풍부한 표정을 가진 학교를 실현했다. 디자인이 특징인 초등학교, 옥상 건축물이 인상적인 중학교 등 각각의



마쿠하리 베이타운의 개성있는 안뜰을 갖고 있는 가구(街區)

개성 있는 외관이 거리 경관과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에서는 학교의 외관도 거리의 경관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각 학교 내부에 참신한 디자인으로 학생들의 개성과 주체성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환경을 실현시키고 있다. 학년별로 교실동과 워크스페이스를 마련하여 자유로운 발상하에 이상적인 교육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도서실, 컴퓨터실 등 주체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오픈 스페이스를 갖추고 있어 '한명 한명이 자주적으로 배운다'는 교육방침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마쿠하리 베이타운 교육공간